

KCRP <종교와 평화> 4월 1일자
총무원장 스님 인터뷰 요청(안)

1, 다종교사회에서 종교간 갈등은 사회생활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더불어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종교간 대화와 협력이 왜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 종교는 한사람의 인격형성과 정체성 확립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념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신념을 증명하는 영역이 객관적 과학의 바깥에 있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독선(獨善)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자비나 사랑 등 상생(相生)이 각 종교의 궁극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종교의 순기능은 확대하고 독성은 제거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종교에 의해 사회가 불행해지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종교간 갈등이 얼마나 위험하고 종교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퇴락시키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와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는 특히나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2, 비일비재한 종교간 갈등으로 인한 불미스런 일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종교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노력이 각 종단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무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지금도 KCRP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교간 대화와 공동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종교지도자나 일부 선구적인 종교인만의 대화교류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부터 다종교문화에 대한 체험과 이해를 넓혀가야 되고, 사회적인 문화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종단 스스로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와 교류활동을 위한 투자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종단도 최근 '종교교류위원회'를 구성하여 종교간 대화인력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려 하고 있습니다.

3, 취임 당시 “소통”과 “화합”을 깊이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불교계 내부뿐만 아니라 종교계 일반에서도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해 특별히 주문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모든 존재는 하나의 생태계에서 서로 상호 작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생 공존의 첫출발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 타 종교인도 나와 동일한 인격과 신분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점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타 종교도 나와 동일한 ‘믿음’ 체계를 갖고 인류문명에 기여한 ‘가치있는’ 종교라는 점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각자의 종교를 선택하게 된 개인의 인연과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과 사회의 성숙에 기여하는 종교로 신뢰받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특히 화쟁과 통합의 문화를 구현해 왔습니다. 우리사회 다양한 종교도 함께 어울려서 세상에 소금과 목탁이 되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지난 1986년 창립되어 올해로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연륜이 쌓이면서 국내 종교간 대화와 협력사업을 바탕으로 세계종교계의 평화를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자 IPCR (종교평화국제사업단)을 창립해 지난 2008년부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팽창과 더불어 질적향상을 위해 각 종단의 협조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한국종교계의 국제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국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함께 모아 세계인들과 나누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히 다양한 종교가 손을 잡고 자비를 실천하는 일은 그 자체로 세계인에게 커다란 공명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국내의 종교간 대화교류가 다양하게 발전해야 합니다. 노력한 만큼 세계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5. 법정스님 입적으로 온 국민이 애도와 더불어 큰 성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교간 대화교류 역사에 있어서도 큰 가르침과 흔적을 남기셨구요. 법정스님과 관련하여 총무원장스님으로서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큰스님의 뜻대로 무소유로 본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함께 스님의 뜻을 따르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법정스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종교는 친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상호 배려와 관용으로 하나가 되어 국민에게 친절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착하지 않는 가운데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